마더와이즈-자유 소감문

이세영

때는 바야흐로 지난 2월 중순. 몸도 마음도 시려웠던 어느날, 목자님께로부터 마더와이즈 교육을 들어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녀양육에 있어 고민이 많았던 때여서인지 '마더와이즈'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 이름에 끌려 고민도 없이 교육 신청을 완료해버렸다.

사실 나는 자녀 양육에 있어 자신감이 넘쳐있었다. 아니 삶의 태도 자체가 '자신감'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성공적,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자 했다. 그런데 웬걸? 마더와이즈는 첫장부터 끝장까지 오로지 부모인 나 자신에 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끝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 안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고 육신의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게다가 교육기간 중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특별 새벽기도'가 활짝 웃으며 내게 손짓했다.

결론적으로 우리 네 식구는 생애 첫 특새 완주를 이뤘는데, 그 내막은 이러했다. 마더와이즈가 시작되었던 3월, 첫째가 유치원에 입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된 육신의 모습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시기 시작했다. 완강한 등원거부와 스트레스성 이상행동을 보이는 첫째아이를 보며 나는 그 문제를 아이 자체에서 찾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마더와이즈를 통해 그 문제를 내게로 돌리도록 하셨다. 나의 문제의 뿌리인 '교만과 자만, 집착과 통제'를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셨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다'고 끝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셨고 싹둑싹둑 내 자신을 가지치기 해가며 특별새벽기도 때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로운데 하나님은 내게 '부활의 기쁨' 또한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전의 나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음을, 거듭남의 기쁨 또한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자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다. 불안과 답답함의 감정이 너그러움과 인정의 마음으로 바뀌었고, 불만과 비난의 마음이 칭찬과 격려의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직도 여전히 나의 죄된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이제는 적어도 흔들리지는 않으리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악된 가지를 싹둑 쳐내고 또 십자가에 못박다보면 하루하루 새로워진 '엄마'로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되리라 믿어본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느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많은 어머니들이 경험하실 수 있길 기도한다.